

성인의 기초 소양으로서 국어 능력에 대한 소고

이기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이 글의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학문적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I. 들어가며
- II. 국어 능력의 개념과 성격
- III.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및 국어 생활에 대한 의식 양상
- IV.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
- V. 나오며

I. 들어가며

인간의 사고와 소통에는 언어가 작용되며, 인간이 쌓아올린 문화는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은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다. ‘언어’ 능력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한 이유는 이것이 특정 언어나 특정 사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행위로 표출되는 언어 능력은 그 기반에 언어를 운용하는 규칙으로서의 문법적 지식과 운용 능력, 어휘 능력, 언어적 감수성 등이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언어로 들어갈 때 세부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문법 구조의 차이나, 어휘 구조의 차이, 어휘와 문장의 의미와 의미 파악 전략, 글쓰기나 말하기의 문화적 관습 등에서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지점에서 국어 능력은 언어 능력과는 다른 용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의 경우 외국어 구사 능력과 별개로 한국어를 부리고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언어 능력과 국어 능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국어 능력을 한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체, 사회인으로 살아

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학령기를 지나고 가장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성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국어 능력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털 검색창에 ‘성인’ ‘국어 능력’을 넣어 보면 이에 대한 내용들은 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국어가 어렵다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신문 기사 “세 줄만 넘어가도 어쩔...혹시 당신도 긴글 까막눈?” (2018. 1.)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난독’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기사나 인터넷 타임라인에 보이곤 한다. 그러면서도 유료 독서 모임을 비롯해 독서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¹⁾ 책을 읽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글쓰기의 가치, 글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향하고 있는 국어 능력은 어떤 것일까. 학령기 교육과정에 반영된 국어 교육의 목표로서의 국어 능력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문법, 문학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여 종합적으로 다층적이고 다양한 양상의 국어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를 지나고 나면 성인들은 정식으로 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드물어지며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특정한 부분을 특강 형식으로 듣거나 단발적인 지식 등을 확인하는 교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²⁾

1) 이 경우는 단순히 ‘읽기’ 활동뿐 아니라 평생 교육으로서의 교양 교육의 차원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 외에도 크고 작은 유료, 무료 독서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참고 “새해 목표가 독서인 당신... 독서클럽 가입은 어때요(2018.1.1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2/0200000000A KR20180112117300005.HTML>

2) 국립국어원에서는 해마다 약 50,000여 명의 성인이 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5일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한 과목을 2시간 이상 진행하긴 어려우며, 대부분은 2시간 정도의 단발성 강의로 진행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언어 예절 교육 외에는 일반 성인이나 공무원은 주로 ‘공문서 바로 쓰기’, ‘한글 맞춤법의 이해’ 등 업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 학령기에 형성된 것으로 완성되었다 할 수 없으며, 이는 국어 능력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성인이 되어 학업과 직무, 다양한 관계맺음 속에서 국어 능력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기존의 국어 능력에 대한 논의와, 각종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드러난 국어 능력 실태 및 국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의 본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국어 능력의 개념과 성격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이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어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면적인 층위에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노명완(2002)은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어의 명칭 이외에 ‘언어 예술(language arts)’,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ve skills)’이라는 명칭을 교과목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언어 교육의 성격을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언어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으로 보았다(노명완, 2002: 38). 그는 언어 활동은 높은 수준의 지적 작용이며 지식 생산의 과정이므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대표되는 언어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국어 교육의 목표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능력’을 ‘고등 수준의 창조적 사고 능력’으로 정의하고 학교에서는 교과 학습의 도구가 되며,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았다.

장경희(2005)에서는 국어능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언어의

존재 양식'에 따라 개념을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 논의를 통해서 국어 능력 자체가 '고도의 복합적인 기능'임을 지적하면서 국어능력은 '인간 내부의 생각이나 정서를 말이나 글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능력', '말이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 '말과 글로써 상호작용적인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국어 능력이란 '국어 지식을 기초로 생산적인 언어 기호 활동과 상호작용적인 언어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언어 기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국어능력의 구체적인 하위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국어능력의 하위 구분(장경희, 2005: 60)

능력 층위	표현 능력		이해 능력		관련 국어 지식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듣기 능력	읽기 능력	
음운	• 발음 능력	• 표기 능력	• 청음 능력	• 문자 지각 능력	음운 규칙, 음운 체계
단어	• 단어 변환의 인지 작용 • 단어 표현 능력		• 단어 변환의 인지 작용		단어 지식
문장	• 발화 구성 능력 • 발화 표현 능력	문장 구성 능력 문장 표현 능력	• 명제 구성의 인지 작용 • 해석 능력 • 이해 능력		문장 규칙
텍스트	• 구어 텍스트 구성 능력 • 구어 텍스트 표현 능력	• 문어 텍스트 구성 능력 • 문어 텍스트 표현 능력	• 덩이 명제 구성의 인지 작용 • 해석 능력 • 이해 능력		텍스트 구성 원리

장경희(2005)의 논의는 비교적 전통적인 국어 능력의 하위 요소를 골고루 배치하고 있으나 능력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감수성이나 사고 능력, 태도 등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표현과 이해로 대표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층위를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어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를 보여 준다.

윤여탁·신명선·주세형·김평원·이인화·이현진 외(2009: 29)에서는 국어능력을 ‘언어’, ‘인지’, ‘사회’를 각각 기반으로 하여 정의하면서 구성 요소, 국어 사용 과정, 문식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 네 가지로 나눈 바 있다. 언어를 기반으로 한 국어 능력은 국어 규범의 이해와 활용 능력뿐 아니라 어휘 능력, 문법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종합과 텍스트 생산 및 수용 능력을 의미하고, 인지를 기반으로 했을 때의 국어 능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어적 사고력이라 정의하였다. 사회 기반 정의는 일종의 문화로서의 국어 능력이라 할 수 있겠는데 국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국어 생활을 원활히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 사람의 사회적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 보았다. 국어 능력의 통합적 정의는 국어 지식(앎), 기능, 태도의 구성 요소 중심으로 보는 견해와 국어로 내용을 생성, 조직하고 표현하고 분석, 비판, 이해하는 일종의 사용 과정으로서의 국어 능력, 국어 능력을 문식성 그 자체로 본 견해로 나눌 수 있다.(윤여탁 외, 2009: 29) 윤여탁 외(2009)의 논의는 국어능력의 개념 속에 ‘소통, 문화, 규범’이 핵심적인 요소로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국어 사용과 관련된 능력 외에 (3) 사회 기반 정의를 통해 국어능력이 한 사람이 문화적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능력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구영산(2013)의 논의도 참조할 수 있는데 구영산(2013: 349-350)에서는 양정실(2014)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국어 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속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 1) 국가 교육과정이 상정하는 이상적인 보편 능력
- 2) 각각의 직종이 요구하는 언어능력의 성격에 따라 규정되는 능력
- 3) 국가 수준의 언어능력 시험이 요구하는 국어능력
- 4) 다양한 사회 활동 맥락에서 요구되는 국어능력
- 5) 학습자의 발달 단계별 특성이 반영된 특정 시기의 국어능력

6) 개개인의 언어능력 특성을 고려한 국어능력

구영산(2013)은 이처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국어능력’이란 ‘각각의 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및 개별 언어활동 주체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능력’임을 함의한다고 하였다. 즉, 국어 능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다변화된 양상을 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이다.³⁾

이처럼 국어 능력을 바라보는 층위와 관점은 복합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국어 능력이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정교하며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능력은 그 하위 범주 및 구성 요소도 다층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어능력 검정의 시행 방안을 다룬 이삼형 외(2004)에서도 국어능력의 개념을 다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언어가 ‘규칙 체계’, ‘행위’, ‘기능적 결과물’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 또한 ‘지식’, ‘수행력’, ‘경험’, ‘태도’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교차적으로 각각 융합함으로써 국어능력의 구성 요소 및 범위를 포괄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이성영(2014)은 국어능력에 ‘지식, 기능, 태도, 전략, 문법 능력, 텍스트능력, 국어 행위 능력, 사고력, 문화능력 등 다양한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이들 구성요소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국어능력의 정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어 능력은 기능 측면에서 의미의 구성과 소통을 핵심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때 작용하게 되는 국어 능력은 전인격성, 교양성, 수행성과 비명시성, 일반성, 개별성, 고정성, 가변성이라는 다양한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국어

3) 이 지점에서 일정한 교육을 마친 성인이 각자의 필요에 따른 특성화된 국어 교육을 받고, 자신의 직무나 생활, 환경에 맞게 각기 다른 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능력의 근원에 몸과 마음의 결합으로서의 감(感)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논의를 통해 궁극적인 국어 능력이 ‘언어적 감(感)’의 형태를 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어 교육이 분절된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규훈(2015)은 융복합적 교육의 관점에서 국어능력을 개념화하여, 국어능력의 구조를 ‘사고, 소통, 문화’의 세 범주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범주화는 각각의 담론이 함유한 개념적 성격을 국어능력이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국어능력의 ‘사고, 소통, 문화’ 범주에서 ‘사고’의 측면에서는 ‘국어와 다른 현상을 연계한 문제 해결 능력’을, ‘소통’의 측면에서는 ‘확장된 언어로서 기호를 소통하는 문해력’을, ‘문화’의 측면에서는 ‘문화가 본질적으로 지닌 중층성을 실천하는 힘’을 설정하였다.

〈표 2〉 국어능력의 범주와 요소(김규훈, 2015: 85)

범주		요소
사고	국어적 사고력	국어에 관한 인지적, 정의적 사고, 상위인지
소통	의사소통능력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능력으로서 문해력
문화	언어문화능력	국어 문화 현상의 이해 · 향유 · 전달 능력

이와 같이 국어능력은 복합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된 만큼, 연구자에 따라 시각을 달리한다. 민현식·장영희·노명희·윤혜정·한국문화관광부(2001), 민현식(2002)은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담화(화법) 능력, 독해 능력, 작문 능력, 규범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며, 국어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이들 4대 능력 범주를 측정하는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국어능력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각 연구자가 제시한 국어 능력에 대한 구성 요소의 층위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어 능력

의 다양한 정의와 분류가 드러내듯 국어 능력은 언어 능력이면서 사고 능력이고,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사회 문화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또한 국어 능력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전인격성, 교양성, 수행성과 비명시성, 일반성, 개별성, 고정성, 가변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고 능력, 또는 감각⁴⁾이라는 성격을 국어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개념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III.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및 국어 생활에 대한 의식 양상

1. 국민의 국어 의식 조사

국민들이 국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로는 국민의 국어 의식 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5년 단위로 시행되며, 국어 생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⁵⁾

2015년 조사 기준으로 국어에 대한 관심 “귀하께서는 평소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 법, 혹은 문장 쓰는 법 등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53.0%로 나타나 국민들이 국어 사용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⁶⁾ 세부적으로는

4) 이성영(2014)에 따르면 감(感)으로서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5)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언어 의식과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 언어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의식의 추이를 파악하여 국민의 언어 생활과 밀접한 국어 정책 수립 및 개선에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조사. 전국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6) 이는 5년 단위로 추이가 변하는 경향이 있다. 2005년에는 60.9%였던 것이 2010년에는 45.6%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한 결과이다. 2010년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영어 광풍’의 분위기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결과는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과도 궤를 같이 하는

‘매우 관심이 있다(7.0%)’와 같은 적극적 관심 보다는 소극적 관심(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가 46.0%를 차지했으며 가장 관심을 보이는 국어의 분야로는 언어어절(70.2%) 말하기(69.0%), 맞춤법/발음(55.2%)순으로 나타나 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국민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1.8%로 상당히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18.7%정도, 19.4%가 ‘보통이다’였다.)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을 꼽은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⁷⁾ 이는 국어에 대해 관심이 높은 영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어생활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영역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인식 양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글맞춤법 조항에 대한 일반인 의식 조사 결과⁸⁾ 응답자의 82.4%가 한글맞춤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언론, 출판, 공문서 등 모든 공적인 상황에서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음(82.6%)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84.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3.6%)보다 80.5%p 높게 나타나 상당수가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데 국민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에 2005년에는 61.8%로 그렇다가 높게 나타난 반면, 2010년에는 42.1%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적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렇지 않다(30.7%)’, ‘보통이다(27.2%)’도 상당히 높은 편)

- 7) 이는 중요순으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했을 때, 1순위와 2순위로 택한 응답을 모두 합쳤을 때의 결과로, 1순위 응답만을 추리면 1위는 ‘말할 때 내용 연결 미흡(23.4%)’, 2위가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20.7%)’였다. 그러나 2순위 응답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44.8%)’에 대한 응답률이 단연 높아져, 그 다음 순위인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높임말 사용 부적절(34.2%)’,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31.9%)’과도 편차가 크다.
- 8) 인식도(인지도) 7문항, 이해도와 수용도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69세 미만의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이관규 외 (2014)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는 응답(66.8%)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8.9%)보다 57.9%p 높게 나타났으며, 한글 맞춤법을 배운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있다(93.5%)’고 하였다. 한글 맞춤법 교육 경험자(958명)를 대상으로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라는 응답(70.6%)을 하여 ‘중학교’(18.7%), ‘고등학교’(9.7%)라는 응답보다 많았는데 이는 현재 교육과정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향과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⁹⁾

2. 국민의 국어 능력 조사(2013)

2013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능력이라는 맥락의 국어 능력을 대상으로 전국 20~5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다. 국어능력 등급은 ▲우수(공통 기본교육과정 국어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의 대부분을 획득한 수준, 80%이상) ▲보통(국어능력을 상당 부분 획득한 수준, 50%이상~80%미만) ▲기초(국어능력을 부분적으로 획득한 수준(국어능력을 부분적으로 획득한 수준, 20%이상~50%미만), 그리고 기초 미달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교 재학 이상 학력을 소지한 국민들의 국어 능력이 기초수준 42.2%, 기초미달 6.8%로 절반 정도의 국민들의 국어 능력 수준이 기초이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의 우수등급은 14.9%로 나타났으며, 고학력일수록 국어능력 우수자 비율은 증가했다. 해당 학력 수준의 보통등급은 36.1%

9) 기타로는 대학교(0.4), 책을 읽으면서(0.1), 혼자 강의 들으며 공부함(0.1), 공무원 학원 수강(0.1), 티비나 인터넷(0.1) 등이 있었다.

였다. 이어 고졸과 중졸 이하의 우수등급 비율은 각각 8.7% 7.4%였고, 보통 등급은 각각 30.5% 29.0%로 조사됐다. 직업군별로는 문서 작업이 많은 정신노동 종사자의 우수등급 비율이 1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육체노동 종사자(7.4%), 기타(학생/주부 포함, 13.1%) 순이어서 직업간의 변인별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

20대부터 50대까지의 국어 능력을 비교한 자료 에서 기초 미달에 해당하는 비율은 20대 7.7%, 30대 6.7%, 40대 9.7%, 50대 10.8%로 드러나,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관련하여 우수에 해당하는 비율은 20대 15.2%, 30대 13.7%, 40대 11.4%, 50대 7.7%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어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역별 국어 능력에서는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 능력에 대해 국민들의 국어능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¹¹⁾ 반면 해당 조사에서 읽기 능력과 문법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인 문해 능력 조사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인 문해 능력 조사’¹²⁾ 결과 1수준에 해당하는 결과 1수준에 해당하는 비율은 7.2%로, 수준2는 5.1%, 수

10) 정신노동 종사자의 경우에도 기초수준 이하 비율은 48.3%로 높게 나타났다.

11) 영역별 평균 점수는 듣기 영역이 108.88점(150점 만점), 말하기 영역이 69.79점(150점 만 점), 읽기 영역이 190.66점(300점 만점), 쓰기 영역이 122.07점(250점 만점), 문법 영역이 88.14점(150점 만점)이었다.

12) 2014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4,05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2017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4,004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성인 문해 능력 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

준3은 10.1%에 달했다.¹³⁾ 셋을 합치면 22.4%로 2014년 28.6%에 비해(2014년의 경우 1수준은 6.4%, 2수준은 6.0%, 3수준은 16.2%였다) 근소하게 낮아진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성인 10명 중 2.5~3명이 미흡한 문해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수준의 1수준에 해당하는 연령별의 60대 미만에서는 6.5%였던 1수준의 문해력이 60대에서는 14.2%, 70대에서는 28.7%, 80대 이상에서는 67.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조사와도 큰 차이가 없어서 2014년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50~60대 성인 중 5.3%, 70대 이상 성인 중 44.7%가 비문해자에 해당하며¹⁴⁾ 월 가구 소득 100만원

13) 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해 능력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1수준에서 3수준의 문해력을 지니는 경우 미흡한 수준의 문해력이라 할 수 있다.

① 문해 능력의 의미: 문해 능력은 단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평생교육법에서는 ‘문해’(평생교육법제2조3항)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음.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문해 능력’을 일상생활과 문제해결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능력으로 규정하고 조사함.

② 문해 영역 및 생활영역: 조사에서는 문해영역을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OECD 성인능력 국제비교 조사)기준에 따라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로 구분하고, 일상생활을 문해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생활, 경제생활, 공공생활, 여가생활, 미디어생활로 구분함.

③ 문해 능력 수준의 정의

수준	정의
수준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수준2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수준3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문해력은 있지만 공공생활과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수준
수준4 이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14) 2014년의 경우 수준1에 해당하는 연령별 비율은 18~29세는 0.1, 30~39세에서는 없고, 40~49세는 0.2%, 50~59세는 2.0%, 60~69세는 10.9%, 70~79세는 37.8%, 80세 이상에서는 63.0%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미흡한 문해 수준을 지닌 사람은 수준2, 수준3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 수준 2는 60대 이상부터 14.9%로 높아졌고, 수준 3은 40대 이상부터 14.0%로 높아졌다. (그 전 연령대에서는 한자릿수대의 %였다.)

미만 성인 인구 비문해율은 2017년은 41.1%로 2014년 33.8%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에서 0.1%로 낮았던 비문해율이 2017년에는 1.5%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단위: %)

연령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4 이상
18 ~ 29세	1.2	0.6	4.6	93.6
30 ~ 39세	1.3	1.2	4.9	92.6
40 ~ 49세	0.7	1.4	6.6	91.3
50 ~ 59세	3.3	4.7	11.6	80.4
60 ~ 69세	14.2	10.9	20.9	54.0
70 ~ 79세	28.7	21.7	22.0	27.6
80세 이상	67.7	11.9	7.8	12.5
전체 응답자	7.2	5.1	10.1	77.6

주1) 각 수준별 응답자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로, 전체 응답자 비율의 합이 100(%) 내외가 될 수 있음.

〈그림 1〉 연령별 문해 능력 수준(2017 성인 문해 능력 조사)

고령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30~40대에서도 미흡 수준의 성인이 있다는 것, 단순한 문해능력조차도 어려운 성인의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대략 1/3)이라는 점은,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정책이나 국어 교육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드러내 준다고도 할 수 있다.

4. PIACC: 국제성인역량조사(2013)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으로 OECD 국가 성인 인적자원의 수준과 분포 등을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국제비교조사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의 언어

능력 점수는 종합적인 언어 능력이라기보다 읽기에 국한된 조사이기 때문에 능력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성인역량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⁵⁾

첫째, 한국 성인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은 참여 국가의 “평균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32)이었다. 한국 성인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은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능력(273점)에 해당하며, 일본(296점)과 핀란드(288점)과 비교하였을 때 점수의 격차가 제법 크다고 할 수 있다(일본과 23점, 핀란드와 15점) 둘째, 한국 성인의 언어 능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⁶⁾ 셋째,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언어 능력을 보였다. 넷째, 직종과 직업의 차이가 언어 능력을 구분 짓는 중요 한 요소 중 하나로 드러났다. 다섯째, 성인의 학력이 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은 현재까지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부족한 편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두 조사를 비교하는 데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에서는 성별에 의한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직종에 대한 구분 기준이 다소 상이하여 결과치가 다소 다르다는 점

15) 언어능력은 문서화된 글을 이해, 평가, 활용하고 글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의 목표달성, 지식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글로 표현된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복잡한 문자의 이해, 해석, 평가 등 다양한 스킬을 포함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에서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35~44세 숙련직 여성의 언어 능력이 높은 반면, 45~64세 비숙련직은 남성, 여성 모두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별 간 변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국어 능력은 3종류의 직종으로만 구분함)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점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재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2017 국민 독서 실태 조사

2017년 국민의 독서 실태¹⁷⁾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독서율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국민들과 비교해보면(2013년 기준), OECD 평균 독서율(76.5%)과 비슷한 수준(74.4%)이나 독서 관련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비교해보면(2013년 기준) EU 평균치(31%)와 거의 비슷하지만 최상위권 독서 선진국들과는 격차가 있다(백원근 외, 2017: 187).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59.9%고, 초·중·고등학생의 독서율은 91.7%였습니다. 2015년 대비 성인은 5.4%포인트, 학생은 3.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연간 독서율이란 ‘지난 1년간 일반 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므로 ‘지난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2017년 기준 10명 중 4명이라는 뜻이 된다.¹⁸⁾ 이는 1994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17)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국민의 독서 실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대상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전국 초중고 학생(초등 고학년~고등학생)
- 조사 지역 :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 표본 수 : 성인 6,000명 및 초중고 학생 3,329명
- 조사 항목 : 독서 생활(6), 독서량과 책의 선택(10), 독서 환경(8),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 모임 참여(10), 독서 활성화 방안(6)

18) 문체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의 독서율도 함께 공개했는데 결과로만 보면 우리와 두 나라 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 미국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종이책+전자책)은 2014년 76%에서 2016년 73%로 감소했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독서여론조사 결과, 일본인의 월평균 서적 독서율은 2015년 49%에서 2017년 4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책 몇 권 읽었느냐’고 묻지만, 일본은 ‘지난달에 무슨 책을 읽었느냐’고 물어 질문의 내용이 달라 사실상 한

최저치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독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007년에 연간 독서율은 76.7%였으나 10년 만에 무려 16.8%p나 줄어든 셈이다.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8.3권이고 학생은 28.6권이다. 학생의 경우도 학령별로 나누면, 초등학생은 67.1권, 중학생은 18.5권, 고등학생은 8.8권이였다.¹⁹⁾

① <OECD 가입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 (단위 : %)

국가	독서율	국가	독서율
스웨덴	85.7	캐나다	77.0
에스토니아	84.9	OECD 평균	76.5
덴마크	84.9	프랑스	74.7
핀란드	83.4	한국	74.4
노르웨이	83.2	네덜란드	73.6
영국	81.1	폴란드	73.6
미국	81.1	슬로바키아	69.6
독일	81.1	일본	67.0
체코	79.2	벨기에	65.5
오스트리아	78.7	스페인	65.2
아일랜드	78.1	이탈리아	63.6

② <한국-EU 국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단위 : %)

국가	이용률	국가	이용률
스웨덴	74	프랑스	33
핀란드	66	스페인	33
덴마크	63	한국	32
슬로베니아	48	EU 평균	31
영국	47	크로아티아	31
에스토니아	47	말타	29
네덜란드	45	체코	28
아일랜드	45	슬로바키아	26
라트비아	39	폴란드	26
벨기에	37	이탈리아	24
리투아니아	35	독일	23

① <출처> OECD,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역량조사), 2013.
 * 연평균 독서율 : 해당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OECD 조사에서는 전자책 및 만화책 포함)
 ② <출처> EU : 유로바로미터, 유럽인의 문화활동(CULTURAL ACCESS AND PARTICIPATION), European Commission, 2013.
 한국 : 한국출판연구소, <2013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공공도서관 이용률 : 해당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1회 이상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 한국 자료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만 15~17세(고등학생)가 차지하는 인구구성비 6.4%를 감안하여, (201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의 성인(만 19세 이상) 조사 결과에 고등학생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
 * 본 조사의 결과를 대입한 한국의 2015년 기준 만 15세 이상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29.8%로 2013년에 비해 다소 하락
 * 이어서 오스트리아 22%, 헝가리 19%, 불가리아 18%, 루셈부르크 17%, 루마니아 17%, 포르투갈 15%, 그리스 10%, 키프로스 8% 순임.

<그림 2> 한국인의 독서율 및 도서관 이용률 국제 비교(2013년 기준)

다음으로 성인이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23.7%)였고 ‘교양·상식 쌓기’(19.8%), ‘위로와 평안’(15.2%)이 이어진다. 학생의 경우 ‘새로운 지식과 정보’(28.8%), ‘책 읽기가 즐거워서’(16.7%), ‘교양·상식 쌓기’(14.1%)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의 계기’ 항목을 보면, 성인의 경우 ‘스스로 읽고 싶어서’(36.7%), ‘자기계발을 위해서’(18.7%) 순이

국립의 실질 독서율이 매우 낮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19) 모든 통계에서 학생의 독서 통계 자료는 교과서, 문제집, 만화책 등이 제외된 수치다.

고 학생은 ‘학교 숙제나 독후감을 쓰기 위해’(28.1%), ‘스스로 읽고 싶어서’(25.6%) 순이었다. 성인은 ‘스스로 읽고 싶어서’가 가장 많기는 했으나, ‘독서의 목적’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 ‘교양·상식 쌓기’가 많았음을 고려하면 ‘스스로 읽고 싶다’는 생각의 근원이 독서 자체의 가치를 전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국제 성인 역량 조사,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성인의 국어 능력이나 독서량이 청소년기보다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수치가 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에 교육이 모두 끝난 이후 국어 능력이 정점을 찍고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20대 이후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의 삶의 양상으로서의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²⁰⁾ 이에 성인이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국어 능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IV.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

앞서 다양한 관점에서 국어 능력의 구성 요소와 한국인의 국어 능력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십대 이후 성인의 국어 능력은 점차 낮아지고 부족한 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국어 능력평가와 국제성인역량조사 평가 결과 간에 미시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들 평가는 한국의 성인 국어 능력에 대해 대체로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 성인의 국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연령·

20) 이는 만 15세 학생의 언어 능력을 비교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언어 능력)에서 한국이 2~5위를 한 것과 비교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 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성별·직종·학력 등에 의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기사는 성인들이 보편적으로 드러내는 본인의 국어 능력에 대한 인식 양상을 잘 드러내 준다.

성인 10명 중 9명 ‘국어 공부 필요하다’ 10명 중 5명 ‘자기소개서나
보고서·기안서 작성 등’ 할 때 국어 사용 어려워해

한글날이 있는 10월을 맞아 한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과 대학생, 구직자 등의 성인 10명 중 9명은 스스로 국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 2천381명을 대상으로 ‘국어 자신감과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6%의 응답자가 ‘스스로 국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스스로 국어 공부가 필요하다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구직자가 93.7%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은 92.2%, 대학생은 91.8%가 있었다.

또한 실제 ‘국어사용 중 어려움을 겪었던 적 있다’는 응답자도 61.2%로 조사됐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국어사용이 어려웠던 경우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나 ‘보고서/기안서/기안서 작성할 때’였다. 특히 직장인 중에는 49.5%가 ‘보고서/기안서/공문서 작성할 때 국어사용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대학생 중에는 46.3%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를 꼽았고, ‘보고서 작성할 때’라고 답한 응답자도 34.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직자 중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38.2%로 가장 많았다.

본인의 국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그리 높지 않았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간 이상 정도를 꼽았다. 더불어 ‘100점 만점 중 스스로의 국어실력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0점 이상’을 꼽은 응답자는 14.2%로 10명중 1명에 그쳤다. 가장 많은 응답자(43.7%)가 ‘70점 이상 90점미만’을 꼽았고, 이어 ‘50점 이상 70점미만’을 꼽은 응답자는 34.4%였다.

반면, 본인의 국어실력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휘력이나 맞춤법 등의 국어 문법능력’을 꼽은 응답자가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리/추리/비판능력(30.0%)’, ‘국어 문화(교양) 지식(28.1%)’, ‘창의적 언어능력(25.9%)’, ‘쓰기 말하기 등의 표현능력(15.8%)’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는 ‘독서’가 64.2%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는 ‘신문 꾸준히 읽기(32.3%)’, ‘초·중·고교 때 기본을 충실히 공부하기(31.4%)’, ‘일기/블로그 등 단문이라도 글을 자주 써보기(20.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디지털경제, 2016.10.04. 김지은 기자(kje@deconomic.co.kr)

기사를 보면 성인들이 느끼는 국어 능력의 어려움이 드러난 조사 결과로 앞서 제시된 국민의 국어 의식 조사나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 보인다. ‘국어 공부’, ‘국어 실력’이라는 용어의 세부 내용이 없이 막연하게 제시되어 있어 각자가 생각하는 국어 능력(국어 실력)이 차이가 있을 것이겠지만 ‘어휘력이나 맞춤법 등의 국어 문법능력’을 꼽은 응답자가 35.2%, ‘논리/추리/비판능력(30.0%)’, ‘국어 문화(교양) 지식(28.1%)’, ‘창의적 언어능력(25.9%)’, ‘쓰기 말하기 등의 표현능력(15.8%)’ 등으로 다양한 층위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쓰기, 말하기’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논리, 추리,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언어 능력이 1차적인 기반으로, 어휘력과 맞춤법과 같은 문법 능력이 구체적인 실행태로 작용하게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²¹⁾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는 국어 문화, 지식 등이 직, 간접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거칠게 이루어진 조사이긴 하지만, 국어 능력이 구성되

21) 기사에서 두 항목을 하나로 묶어 조사했지만 어휘력은 좀 더 상위에서 작용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는 다양한 국면과 이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국어 능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며, 국어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 능력은 언어로 활동하는 사회 맥락의 성격에 따라 다변화되며 일정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적성을 띤 국어 능력은 그 사회 구성원에 의해 새롭게 재규정될 수 있다(구영산, 2013). 이는 성인이 되어 혹은 학령기 학습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앞서 기사에서 성인들이 국어 공부が必要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은 업무 등의 장면에서 ‘실질적으로 국어 사용이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순간’에 두드러진다. 이는 국립국어원에 교육 신청을 하는 교육 대상자들의 설문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확인이 된다.²²⁾

그러나 국어 능력은 단순히 특정 문서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위해서만 작동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 두드러지긴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일정한 맥락, 목적성을 띤 국어 능력’으로 국어 능력이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과 장면 중 일부, 국어 능력의 특정 요소가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어 능력은 국어로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하는 능력으로 이것이 곧 삶의 능력이라는 이성영(2014)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에 대한 이성영(2014)의 논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 능력이란 국어로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다. (중략) 한마디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생성해 가는 존재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언어 능력이다. 따라서 국어 능력은 곧 삶의 능력이다.(이성영, 2014: 97-98)

하나의 인격체, 사회인으로서 성인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의 기본은

22) 대부분 공문서 쓰기, 공공언어 쓰기, 어문규범 익히기 등에 관심을 가진다. 업무 중 공문을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로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해결하는 데 국어 교육을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더 전문화되고 숙련된 언어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인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은 언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바탕으로서의 국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기초 소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 ‘소양’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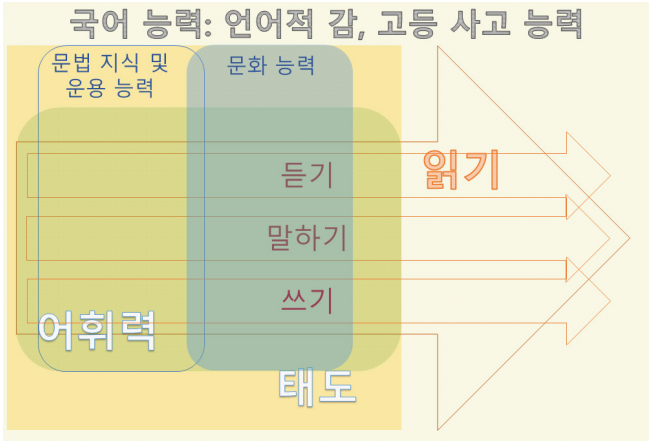
- 소양(素養) 「명사」 평소 닦아 놓은 학문이나 지식. ‘교양02’으로 순화.

그러나 소양을 순화한다는 교양의 경우 “교양02(敎養) [교: -] 「명사」 「1」가르치어 기를. 「2」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으로 ‘부가적인 지식의 성격이 강하다. 인문 소양, 문화적 소양 등의 용어에서 볼 수 있듯 소양은 오히려 고정적이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안정적인 지식이나 태도, 능력을 지칭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맥락에서 확장되고 발전되기 위한 토대로서의 국어 능력을 기초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하위 요소들을 구성하였다.

아래 제시한 그림은 기초 소양으로서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나타낸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은 종합적인 언어 능력으로서의 국어 능력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는 언어적 감,²³⁾ 종합적인 고등 사고 능력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일정 수준의 기초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을 갖춘 이후에 국어 능력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에서 영역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며, 기초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은 바탕이 되는 능력으로서 다소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는 언어 활동(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이 전략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성장하는

23) 혹은 언어적 감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것과 별개로 양적, 질적으로 확장되는 뿌리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기초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에는 문법 능력, 문화 능력, 태도, 어휘력,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그림 3〉 기초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

그림에서 실선으로 또 화살표로 표시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는 국어 능력이 실제로 실현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 화살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수준별로, 분야별로 계속 전문화되고 발전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에 선이 아닌 면으로 드러나 있는 어휘력, 태도, 문화 능력, 그리고 총체적인 언어 능력인 국어 능력은 이러한 수행의 기반이 되면서도 이러한 수행을 통해 길러지고 습득되는 기반이 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문법 지식, 규범 지식, 읽기 전략 등은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반복적인 연습 등을 통해 그 교육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으로 구현해 제공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반면 태도나 사고 능력, 감각으로서의 총체적 국어능력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어 활동을 통해 잘 생기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생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가능하다 생각된다. 사실 어휘력, 태도, 문화 능력 등은 수행을 하는 데 기반으로 작용되는 능력으로 수행의 바탕이 되면서도 수행을 통해 길러지게 될 것이다.²⁴⁾

다만 이 때 가장 크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읽기 능력과 어휘력이라고 보았다. 앞서 언어 능력이 의미 구성 능력과 소통 능력의 성격을 지닌다고 했을 때, 이러한 과정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어휘력-어휘의 의미를 구성하

24) 성인의 기초 문식성 향상을 위한 해외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세 나라 모두 기초적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기반으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영역에 대한 강조가 의미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 Skills)에서 기초 문식성이 부족한 성인들의 수를 감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인문식성 핵심 교육과정(Adult Literacy Core Curriculum)을 개발했다. 이 교육과정은 크게 세 영역(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세 수준-입문 수준(entry level), 1수준(level 1), 2수준(level 2)-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담고 있다. 입문 수준은 다시 하위 세 단계를 두고 있다.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성인문식성 교육은 주로 고등교육부(Ministry of Training, College and University)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 성인문식성 조사 연구(IALS)’ 등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문식성 및 핵심 기능(Literacy and Essential Skills)’을 도출한 바 있다. 핵심 기능은·읽기(reading)·쓰기(writing)·문서 사용(document use)·수리력(numeracy)·컴퓨터 사용(computer use)·사고하기(thinking)·구어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타인과 협업하기(working with others)·지속적인 학습(continuous learning)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성인 국어 능력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사 연수 프로그램(SEA: Specialization for European Teachers of Basic Skills for Adults, 범유럽 성인 기초기능 담당 교사 전문화 프로젝트)을 수행한 바 있다(2015년 5월 종료).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ACEFIR), 터키(ACEV), 네덜란드(Bureau Lidwien Vos de Wael), 독일(DIE)의 교육기관과 협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통해 성인들에게 양질의 기초 기능 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성인 국어 능력 교육 실행을 위해 노르웨이 교육부는 성인 기초 읽기·쓰기 학습자를 위한 포럼(Forum for Reading and Writing Difficulties among Adults, FORWARD)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박재현·옥현진·김종윤·이기연·이유원·문서정·유희진, 2015 참조)

고 소통하는 능력²⁵⁾과 읽기 능력 -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이 소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의미 구성과 소통에 바탕이 되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영역들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또, 기반이 되는 능력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육 과정 내지는 프로그램에 녹여낼 수 있을지, 수준별로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V. 나오며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국어 능력의 구성 요소와 한국인의 국어 능력 실태 및 국어 능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일정 학습 기간을 거친 성인이 궁극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으로서의 국어 능력이 어떠한 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어 능력은 매우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이긴 하나 그 중에서도 의미 구성과 소통 능력이 국어 능력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양상이나 이러한 능력이 추후 다른 제반 국어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세부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학습이 어려운 성인의 경우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

25) 어휘를 안다는 것은 다층적인 것으로 개별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을 안다는 것이 아닌 복잡한 사고 작용이고 매우 복합적인 지식(형태, 의미/이해, 표현)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 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상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8. 11. 15. 투고되었으며, 2018. 11.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8. 12. 13. 심사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구영산(2013),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국어 능력의 한 가지 정의 방식에 한 연구」, 『국어교육』 143, 349-380.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2014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TR 2015-15)』,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TR 2018-1)』,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규훈(2015), 「국어능력의 융복합적 개념화 탐색: 매개 답변을 통한 핵심 개념 설정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7, 77-109.
- 김종철·민병곤·박현정·정희창·김봉순·박재현·주재우·이관희·이지수·박은진·정재미(2013),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최종 보고서(국립국어원 2013-01-29)』, 국립국어원.
- 김지은(2016. 10. 4.), 성인 10명 중 9명 ‘국어 공부 필요하다’, 디지털경제, 검색일자 2018. 12. 14., 사이트 주소 <http://www.deconom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50>.
- 김창영·채광식·유나영·전현재·고혜지(2015), 『2015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국립국어원 2015-01-14)』, 서울: 국립국어원.
- 노명완(2002), 「국어 교육과 국어능력」, 『새국어생활』 12(2), 33-49.
- 류기락·임연·김안국·장주희·반가운·윤수린(2016), 『2016년 국제성인능력측정 프로젝트(PIACC) 사업(수탁사업 16-09)』,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 민현식(2002), 「한국인의 국어능력 실태」, 『새국어생활』 12(2), 15-31.
- 민현식·장영희·노명희·윤혜정·한국문화관광부(2001), 『국어사용 실태 지수 개발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2487872)』, 서울: 문화관광부.
- 박재현·옥현진·김종윤·이기연·이유원·문서정·유희진(2015),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중장기 계획(국립국어원 2015-01-18)』, 서울: 국립국어원.
- 백원근·이기재·남춘호·이용훈·박몽구·김종명·임덕성·김경희(2017), 『2017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ISSN 2233-5811)』,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양정실(20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위한 국어과 진단평가 도구 및 보정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CRI 2013-14)』,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여탁·신명선·주세형·김평원·이인화·이현진·이희진·최영인·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교육연수원(2009),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국립국어원 2009-01-56)』, 서울: 국립국어원.
- 이관규·유현경·허재영·신호철·이동석·주세형·김수영·김부연·유미향·박보현·이규범·이경숙·정지현·김미미·신희성·이지현(2014), 『한글맞춤법 영향 평가(국립국어원 2014-01-40)』, 서울: 국립국어원.

- 이삼형·김창원·이성영·남가영(2004), 『국어능력검정 시행 방안 연구(ISBN 89-7820-132-693710)』, 서울: 국립국어원.
- 이성영(2010), 「국어 생활로 측정하는 국어 능력」, 『새국어생활』 20(1), 63-77.
- 이성영(2014), 「국어능력의 개념과 성격: 감(感)으로서의 국어능력」, 『한국초등국어교육』 56, 89-116.
- 장경희(2005),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지준호(2016. 6. 13.), [기획] 우리나라 성인의 인적 역량 수준과 과제...국국제성인역량조사(PIACC) 결과 분석(류기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월간교육 5월호에 기고한 글을 재게시), 에듀인뉴스, 검색일자 2018. 12. 14., 사이트 주소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0>.
- 표태준(2018. 1. 19.), 세 줄만 넘어가도 어쩔...혹시 당신도 긴글 까먹는?, 조선일보 금요일, 검색일자 2018. 12. 14., 사이트 주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8/2018011801596.html.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수탁사업 2018-8-1)』, 서울: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황희경(2018. 1. 14.), 새해 목표가 '독서'인 당신...독서 클럽 가입은 어때요, 연합뉴스, 검색일자 2018. 12. 14., 사이트 주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2/0200000000AKR20180112117300005>.

성인의 기초 소양으로서의 국어 능력에 대한 소고

이기연

본고는 성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국어 능력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국어 능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정리하고 국어 능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및 국어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인의 국어 능력이나 독서량이 청소년기보다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수치가 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적인 언어생활뿐 아니라 업무 및 학업에 있어서도 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국어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혀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양상을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연구는 의미 구성과 소통 능력이 언어 능력의 핵심이 된다고 보고 이러한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어휘력 - 어휘의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읽기 능력 -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라 보았다. 국어 교육은 이러한 영역들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기반이 되는 능력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추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국어, 국어 능력, 국어 교육, 기초 소양, 언어적 감, 성인의 국어 능력

ABSTRACT

A Study of Korean Language Ability as Basic Literacy

Yi Kiyoun

In order to determine the minimum level of Korean language ability that adults should possess, I reviewed research on Korean language ability and examined native speakers' Korean language ability and their perception of it. Results confirmed that Korean language ability and reading capacity in adults were lower than in adolescents, and this also decreased with age. Because Korean language ability is crucial not only in everyday life but also in work and stud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aspects of Korean language ability that adults should develop.

Results suggests that meaning and communication ability constitute the core of language ability. The ability to accept and interpret information is the basis of the ability to construct meaning and communicate.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conduct more detailed analyses of these areas and actively discuss ways of improving speakers' underlying language abilities.

KEYWORDS Korean, Korean Language Ability, Korean Language Education, Basic Literacy, Linguistic Sense